

## 오텐문

헤이안 신궁은 일본 헤이안 시대(794-1185)의 수도이자 현재 교토의 전신이기 한 헤이안쿄의 심층부 일부를 8분의 5 크기로 복원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오텐문은 헤이안쿄의 정전(正殿)인 조도인의 정문을 재현한 건축물입니다. 지금의 오텐문은 높이가 18.43m에 이르지만, 모델이 된 조도인의 정문은 지금의 2배에 달하는 높이였습니다.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벽으로 둘러싸인 안뜰과 함께 여러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이고쿠텐은 오텐문의 맞은편 안뜰에서 훨씬 더 안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참배를 올리는 건물인 하이텐입니다. 신사의 정원(신궁 신엔)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다이고쿠텐의 왼쪽에 있는 밧코로 옆에 있습니다.

헤이안 신궁의 경내 남쪽에 위치하는 오텐문은 헤이안쿄 시절에는 정전인 조도인의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헤이안쿄는 일본에서 헤이안 시대보다 더 오래된 시대의 도읍이었던 나라현의 헤이조쿄를 본떠 조영되었습니다. 나라 시대(710-794)의 도읍이었던 헤이조쿄는 중국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지금의 시안)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헤이조쿄와 장안, 이 두 도읍 모두 남쪽에 있는 문에서 북쪽을 향해 들어가는 격자형 구획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같은 설계는 중국식 점술과 풍수지리를 기반으로 고대 중국의 사상인 오행사상(만물은 5가지 원소로부터 생성된다는 사고방식)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